

<p>9. 2024.11.20.수. 15:05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을 엽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안도현</p> <p>한 잎 두 잎 나뭇잎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 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</p> <p>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 주고 싶습니다.</p> <p>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</p> <p>가을 저녁 한 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 보십시오.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</p>	<p>10. 2024.11.20.수. 15:05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매 단풍 들것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김영랑</p> <p>'오매 단풍들것네' 장광에 골불은 감nip 날러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'오매 단풍들 것네'</p> <p>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'오매 단풍 들 것네'</p>
<p>11. 2024.11.20.수. 15:05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포도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이육사</p> <p>내 고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</p> <p>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</p> <p>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</p> <p>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</p> <p>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아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렴</p>	<p>12. 2024.11.20.수. 15:05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바쁜 때 웬 설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김용택</p> <p>소낙비는 오지요 소는 뛰지요 바작에 풀은 허물어지지요 설사는 났지요 허리끈은 안 풀어지지요 들판에 사람들은 많지요</p>